

정치란 과연 무엇인가?

정치학입문 1-2주 강의

1. 인간은 왜 정치적인가? 정치적 동물인가?

우수의 여신(쿠라(Cura)가 시냇가에 앉아 시름에 잠겨 있다가 손으로 진흙을 짓이겨 이상스런 형상을 빚어냄-> 생명의 신인 주피터가 생명을 줌(자기소유)-> 이에 항변-> 대지의 신인 텔루스(Tellis)가 그 흙은 자신의 일부주장- 심판관 사투르누스가 심판

모두는 공평이 제 몫을 찾을 지어다.

⇒ 주피터-> 죽은 후 영혼을 찾아가라, 텔루스 해골을 찾아가라,

쿠라 생명이 붙어있는 한 네가 말으라. 이 아기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매일 너를 닮은 채 시름에 잠겨 있을 것이다.

1) '인간은 사회적 존재'- 인간사회에는 인간은 갈등과 조화, 다툼과 평화가 언제나 상존

ex) 피자와 형제간의 다툼.

=> 어머니. 아버지가 와서 중재 -> 평화를 회복-> "정치"

=> 사람은 본래 정치적 동물

2) 아리스토텔레스 ; '인간은 정치적 동물'

: 인간사회에는 정치가 있고, 정치가 있는 곳에 권력이 존재하면, 그 권력을 추구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.

* 인간은 왜 '정치적 동물'이라고 하는가?

= 인간은 투쟁(정치로 해결)+ 동물적 본능, 욕구

*파스칼: "인간은 천사도 아니요 금수도 아니다. 그런데 불행한 것은 천사의 흉내를 내려는 자가 금수의 흉내를 내곤한다.- 인간을 중간자.

2. 정치의 중요성과 필요성

1. 정치의 부재-> 국가안보위협, 경제성장 실패, 사회혼란, 윤리, 도덕의 붕괴
-> 가장 심각한 경우, 주권상실
=> 사회존속 위해
2. 정치인의 부도덕-> 당선되면 막대한 선거자금, 뇌물, 권력남용.
=> 정치가 해결(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해 사회질서 유지)
=> 국민,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
3. 인간의 사회생활 현상- '투쟁의 장' -> 사회질서 확립
4. 이상사회로의 진보를 위해(=리더십, 사명감, 봉사정신을 가진 지도자 선출)

3. 정치학은 어떤 학문인가?

: 왜 우리는 정치학을 공부하는가? 정치학이 공부할 가치가 있는가?

1) 정치학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학문이다.

- 정치권력의 왜곡을 감시. 비판

- 정치권력의 왜곡: 지배자나 지배집단의 권력행사가 독선, 부패, 타락, 무능, 태만 등에 빠져서 피지배자들의 동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.

2) 정치학은 사회를 경영하는 학문

- 정치학은 사회를 보다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방안을 제시해야 함

3)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 : 존재+당위

- "진보된 정치사회 창조"

- 바람직한 정치사회를 만들려는 의지와 사명감이 필요.

4) 정치학은 정치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임(political science): 사회과학=행태주의

- 과학성+규칙성

4. 정치는 왜 필요해졌나?

1) 정치(학)는 왜 생겨났을까?

: 인간의 공동생활로 인해 공정한 분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가 생겨남

=>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치(먹을거리, 재산, 권력)가 존재하는 가치보다 같거나 더 많은 관계이기 때문에(수요 \geq 공급)

ex) 자연생태계: 분배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지 않음 ex) 왕범

인간: 무한한 욕망(욕구)->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정치를 통해 이를 해결.

2) 정치는 누가, 무엇을, 어떻게 해야 하나?

대한민국 헌법 제1조

-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
-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가) 누가: 정치의 주체

* 정치=국가경영 (소극적 개념)

가) 사람에 의한 국가경영: 후진국형 정치 모습

-> 독재정치나 권위주의 정치와 접목되는 경우가 많음(정책결정자의 가치나 스타일)
: 어떠한 유형의 정치 지도자가 되느냐? 의 문제

나) 시스템에 의한 국가경영: 선진국형 정치 모습

=> 시스템에 의한 국가경영이 사람에 의한 국가경영 보다 더 민주적, 안정적, 예측가능
: 제도화,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 체제 구축 등

나) 무엇을

: 정치가 국민에게 무엇을 서비스해야 하느냐의 문제

: 인간의 소망과 속성을 동시에 충족, 조화를 이루어야 함.

- 인간의 소망: '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'

- 인간의 속성(욕구): 식탐욕+소유욕+ 권력욕

=> 위의 내용을 실현하지 못하고, 국민의 기본권을 취소하거나 제약하게 되면 '악의 정치'로 전락하게 되는 것임.

⇒ 따라서 '정치인을 위한 정치'가 아닌 실질적으로 '국민을 위한 정치' 실현이 중요함.

• 링컨 대통령의 케티즈 버그 연설(1863년)

: **government of the people, by the people, for the people,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.**

* 케네디 대통령(John F. Kennedy) 취임연설(1961)

And so, my fellow Americans: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—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.

다) 어떻게

: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수단,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느냐

=> 열린 국민의식과 정치참여의 문제: 참여정치문화의 형성

- **현 한국사회의 모습**

- 남북 분단. 선거 때 마다 동서로 분열
- 정치 양극화
- 국회: 식물국회, 동물국회, 방탄국회
- 정부: 식물정부?
- 사회 현상: 사회적 양극화, 가계부채 증가. 청년 실업, 빈부격차,
- 지역 양극화

5.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?

* 정치학은 서양에서는 Aristotle나 Plato까지, 동양에서는 공자, 노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.

1. 정치의 개념

-시대와 장소, 학자의 처지나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석.

-1) 서양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?

가) 정치학의 기원: 고대그리스의 도시국가(Polis)에서 비롯됨.

=> 그리스의 폴리스(Polis)내에서의 특정한 활동을 정치라고 지칭함

나) 정치의 개념에 대한 주장

a) 플라톤: '정치철학'의 아버지

- 정치를 인간 영혼의 최고선을 도시공동체 안에서 실현시키는 것

=> 이상주의 이론

b) 아리스토텔레스: '정치과학'의 아버지

- 정치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전체의 선을 실현하는 일

- 윤리학, 정치학 경제학 분야를 분리해 정치학의 독립 시도

- 실증주의적 정치이론

c) 마키아벨리(근대정치학의 시조)

: '군주론(The Prince, 1532)'- 국가라는 용어 처음 사용

-> 정치를 권력현상으로 보고 정치를 종교와 윤리로부터 분리시킴.

-> 선을 위해서는 악을 이용할 것을 주장 "군주는 사자(용맹성)와 여우(교활함) 기질 혼합"

*마키아 벨리: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,

1469-1527년에 영국이나 프랑스. 또는 스페인과 같은 나라는 군주제가 정착되어 있었으나. 이탈리아는 분열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었고, 남부의 나폴리, 북서부의 밀라노, 북동부의 베네치아. 중부의 피렌체, 그리고 교황령 등 5개로 분리되어 있음-> 하나의 반도를 통합할 강력한 권력이 가진 곳이 없음

=> 교회에 대한 강한 불신과 통합에 대한 열망.

d) 홉스: "리바이어던"

=> 자연을 '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상태'로 설명

=> 국가를 괴물로 규정,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주제 옹호

=> 정치란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일

e) 로크: 영국의 계몽철학, 경험주의 선구자

=> 개인들의 동의에 바탕을 둔 제한적인 정부 수립

f) 벤담: 공리주의, '최대다수의 최대행복'(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)

=> 자유경제를 주장하였으며, 정교분리와 표현의 자유, 양성평등, 동물의 권리 등을 주장.

G: 라스웰: 권력획득

h) 이스턴: 가치의 권위적 배분

* 정치현상과 이론 연구 이유: 현실정치를 진단, 분석, 해명해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한
목적임

다) 정치학의 시대적 성격변화

a) 로마시대

: 그리스사상(헬레니즘:인본주의)과 헤브라이사상(기독교세계관)이 융합됨

=> 인간평등, 사해동포주의(四海同胞主義), 개인의 독자적 가치 등 중요내용

-> 도시국가의 '혈연적' 성격에서 주변의 이민족을 합병, 정복함으로써 '지연적' 성격

-> 로마의 정치학은 범세계주의적 인간관과 혼합됨

b) 중세시대: 국가보다 교회가 우위에 있어 정치학이 신학의 일부로 변화

* 아퀴나스 "신의 섭리가 지배하는 우주의 유기적 부분이 국가라고 주장"

c) 16-18세기: 종교개혁과 문예부흥-> 신학에서 분리되어 정치현상을 설명 비판하는 학문으로 변화

d) 19세기: 정치학의 연구대상이 국가와 정부제도- **국가론 연구가 생겨남**

e) 20세기 초: 정치학의 연구대상이 국가에서 사회로, 제도적 분석에서 과정적 분석으로 변화->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이익의 분화, 집단의 폭발현상 등 사회적 관계의 다원화와 복잡화가 원인-> 2차 대전 이후 정치과학 대두(행태주의)

2) 동양에서는 정치(政治)를 어떻게 생각했을까?

* 동양 :중국,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소위 '한자 문화권'를 지칭

政 = 攵 (칠복) + 正(바를 정)

가) 공자 "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"

- 정자정야(政者正也)라 하여 '정치를 바르게 잡는 것'이라고 보았다.

공자의 일화

제자: 위 나라의 임금께서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
선생님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?

공자: "반드시 이름을 바로 잡을 것(正名)이다"

" 임금은 임금 노릇을 하고, 신하는 신하 노릇을 하며,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, 자식은 자식
노릇을 하는 것이다.

->정의란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, 이익추구가 아니라 국가 내에서 올바른
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.

나) 맹자- 백성을 위하는 것

맹자의 일화

맹자가 어떤 나라에 찾아 갔을 때, 그 나라의 왕이 " 이렇게 천리를 멀다하고 찾아주시니 뭔가 내 나라에 이익이 될 일이 있겠지요"라고 반기자, 맹자는 매정하게 대답합니다. "왕께서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? 역시 인자함과 정의가 있을 뿐입니다. 왕께서 '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'라고 말씀하시면 관리들은 '어떻게 하면 내 가문을 이롭게 할까? 하고 말할 것입니다. 즉 이렇게 위, 아래가 서로 이익을 취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.

다) 묵자 -'이익'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

라) 한비자-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다스림과 군주의 통치권력을 강조.

=> 동양의 지배적인 정치사상이 되지는 못했다.

3) 동서양의 정치에 대한 차이점

가) 정치의 본질 : 서양- 현실적 이익을 중시(권력정치, 배분의 정치)

동양- 이상적인 정의를 중시(유교적 측면)

나) 정의라는 개념 :

- 서양: 분배의 의미

* 타이타닉(영화)- 부녀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운다. 신사들은 남는다.

정의로운가?.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는 않는다. 단지 배분의 의미.

- 동양 : '바로잡음'의 의미

다) 통치권력의 정당성 : 서양 -초기: '왕권신수설' ->오늘날은 '국민주권설'

동양- 국민의 마음, 국민의 동의

라) 권력의 제한

서양: 삼권분립적 구도에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견제와 균형

동양: 권력의 사용을 미화시킴, 중앙집권적 성향(권력자의 도덕성에 의존)

6. 정치학의 주요 개념: 권력과 권위 그리고 영향력

* 옛 속담

“정승이 죽으면 문객이 없어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” - ‘권력’

=> 권력은 강제력을 갖고 지배하고 구속할 수 있는 힘이다.

1. 권력 (勸力, power): 정치학의 기본 개념

A라는 사람이 B에게 C라는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(강제성)

2. 권위 (權威, authority) : 제도 . 이념 . 인격 .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능력 또는 위력. -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발적 복종(내면적)

<-> 권력은 타율적, 외면적

: 권위가 뒷받침된 권력이 가장 막강

3. 영향력 (影響力:influence)- ‘효과’의 여부

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관계로서 한 쪽이 다른 쪽에 미치는 힘(비강제성).

: 권력은 영향력의 일부

-> 권력과 권위가 함께할 때 영향력은 더 커짐.

ex) 안티사이트

7. 정치에 대한 이론: 정치학의 연구범위

1) 국가현상설: 근대국가 성립, 발전 당시 이론으로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봄

: 게텔(R. G ettel), 가너 (J. W, Garner), 길크라이스트(R.N Cilchrist)

: 정치를 국가의 작용이나 활동의 전부 (국가현상 전부설) 또는 일부 (국가현상부분설)로 보는 견해

-> 국가현상이 곧 정치현상임으로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을 동일시함

2) 단 점

- 대상의 편협성
- 보편적인 정치현상 설명 불가
- 국가 이전의 정치현상 연구 불가능
- 형식론에 빠지기 쉬움

: 사회집단의 정치권력 과정 개입 설명 불가능 (쿠데타, 혁명)

2) 집단 현상설: 국가 현상설에 도전

: 사회적 집단의 상호관계로서 국가 외 일반적 정치현상 주장

즉, 정치는 국가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사회내의 집단현상이며, 국가 또한 다른 일반집단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(다원주의)

a) 집단 상호관계설: 독일과 오스크리아의 '사회학적 국가론자'들의 주장

-> 우세집단과 열세집단간의 관계

: 종족이나 민족간의 상호 권력 관계현상

: 국가는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여 발생한 정복의 산물이며 억압과 착취의 수단

: 억압과 착취가 정치

ex) 정복설, 종족 투쟁설, 계급투쟁설

* 단점

- 국가내의 통합과 조화, 조정 설명 못함

b) 내재적 집단 현상설: 영, 미의 다원론자들의 주장

- 국가도 다른 사회집단과 같이 하나의 기능 단체

-> 국가우위성 인정하지 않음

: 모든 집단의 공동 사무 처리과정에서 정치현상 발생

* 단점

-국가가 다른 사회집단을 통제함을 설명 못함.

4) 소결론 : 정치는 결국

a) 정치는 사회적 현상

b) 모순의 권력적 해결

c) 문제해결의 조직화

: 자파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직활동 (정당, 입력단체, 국가)

d) 인간의 공공생활 현상

: 정치는 경제활동, 종교생활, 심미생활 등 많은 인간활동의 일부분

: 본질적으로는 권력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적 생활이 아닌, 공적생활